비즈 & 피플

NS홈쇼핑 최고운영책임자(COO) **조항목** 전무

“‘삼고초려’ 자세로 섬김의 소통할 것”

소비 심리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유통업계는 돌파구 찾기에 여념이 없다. NS홈쇼핑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신설, 소비자 전략으로 ‘삼고초려’를 내세웠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세 번이나 찾아가 군사로 초빙한 것처럼 소비자·협력사·직원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신임 NS홈쇼핑 COO 조항목(58) 전무를 만났다.

1인가구 증가, 혼밥, 쿡방 등 최근 트렌드 호재
가치소비와 건강 만족, 프리미엄 간편식 개발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 맞춘 PB 상품 개발 주력

조항목 NS홈쇼핑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가성비 높은 상품을 바탕으로 1~2인분 소포장, 가치소비와 건강의 프리미엄까지 더한 새로운 가정간편식(HMR)을 선보일 것”이라고 미래 청사진을 밝혔다. 사진제공 | NS홈쇼핑

-COO가 이번에 처음 생긴 직책이라고 들었다.

“COO(Chief Operating Officer)는 기업 내 사업을 총괄하며, 일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최고운영책임자다. 홈쇼핑이 트렌드를 리딩하는 유통업으로 부상하면서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상품 개발과 소비자 니즈도 다양하게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신속하게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에 전달하기까지 일관되고 신속한 전략 실행을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갖추려 한다.”

-최고운영책임자로서 ‘삼고초려’ 전략을 내세웠다.

“유비가 제갈량을 군사로 모셔올 때 정성을 쏟은 것처럼, 소비자·협력사·직원과 함께 호흡하며 섬김의 소통을 할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주문 상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보내는 것도 소통이다. 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시켜서 도움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협력사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파트너사를 만나 오랫동안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활동이 중요하다.”

-NS홈쇼핑은 식품이 강한데 1인 가구 증가, ‘쿡방’·‘혼밥’ 등의 트렌드가 도움이 되는가.

“NS홈쇼핑은 의무적으로 전체 상품의 60% 이상을 식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식품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만큼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트렌드에 발 맞춰 세분화된 상품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날씨에 따른 위생, 농수축산의 작황에 따른 재료 수급 등을 두루 갖춘 것도 우리의 강점이다.”

-향후 먹거리 시장의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홈쇼핑의 장점인 가성비 높은 상품을 바탕으로 1~2인분 소포장, 가치소비와 건강의 프리미엄까지 더한 가정간편식(HMR)을 선보일 것이다. 집에서 혼자 간편하게 요리해 먹는 사람이 늘고, 불황에 외식을 줄이는 이들도 많아진 것을 겨냥했다. 맛있고 편리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더해 건강 추구라는 가치소비의 만족도 노렸다. ‘가정간편식=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는 상품군을 통해 ‘합리적 가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할 것이다.”

-‘합리적 가치소비’에 대한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무조건 아끼는 알뜰소비와 다르다. 가치있다고 판단되거나 본인 만족도가 높은 소비재는 과감히 소비한다. 가격·만족도 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합리적 가치 소비’라 할 수 있다. 무조건 저렴한 상품이 아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행하는 게 핵심이다.”

-NS홈쇼핑의 상품으로 예를 들자면.

“최근 론칭한 ‘메밀꽃필무렵’을 꼽을 수 있다. 20년 전통 메밀면 전문점 ‘메밀꽃필무렵’의 레시피 그대로 만든 상품이다. ‘냉메밀면’과 ‘비빔메밀면’으로 구성했는데, 1~2인 소가구에서 부담 없이 조리할 수 있도록 1인분으로 소포장했다. 가성비 높은 상품이면서도 1~2인분 소포장, 가치소비와 건강 프리미엄까지 더한 다양한 가정간편식이다.”

-이런 전략을 추구하려면 협력사와의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방송에 대량으로 내놓아야 하는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동성과 생산성을 갖춘 협력사들을 확보한 것이 우리의 훌륭한 자산이다. 찾아가는 상품 개발로 식품전문 홈쇼핑 채널의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향후 NS홈쇼핑의 계획이 있다면.

“TV홈쇼핑의 본질을 잃지 않고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자 PB상품 개발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니즈에 따른 트렌드 상품 개발에 신경쓰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제휴 확대 및 새로운 영상콘텐츠를 통해 쇼핑 혜택은 물론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찾아갈 것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조항목 NS홈쇼핑 COO(전무)
▲1959년 강원 원주 출생 ▲상지대 경영학과 졸업 ▲한양대 경영대학원 석사 ▲대교방송 국장 ▲NS홈쇼핑 채널전략팀장, 미디어사업본부장, SB사업본부장, TV사업부문장

이화의료원, 14일까지 우즈벡 봉사활동

이화의료원이 8월6일부터 14일까지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떠났다.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지역 종합 메디컬센터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 특강 등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

봉사단에는 강덕희 신장내과 교수를 단장으로 박미혜 산부인과 교수, 김한수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 이승열 정형외과 교수 등의 전임의, 간호사, 치위생사, 재학생, 자원봉사자 등 30명이 참가했다. 이화 로제타홀 의료선교센터와 씨젠의료재단이 진단검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봉사단의 전문인력과 검사장비, 물품 등을 지원한다.

이화의료원은 3일 의학관 A동에서 2017 이화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인사

피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전보〉 △부산경남지역본부장 고중환 △부산경마처장 겸 부산경주자원관리부장 김용철

부고

◇민경삼 KBO 육성부위원장 전 SK와이번스 단장 모친상=5일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02-3410-3151

강주현의 퍼즐월드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

		3	1				5	
7			2	6		3		
	4				7			6
		2		1			8	9
	6		5		8		2	
8	3			2		4		
3			7				6	
		6		4	1			7
	8				6	5		

	1	8				7	9	
4			3		9			8
9				7				1
	4			2			3	
		1	6		3	4		
	6			4			1	
2				6				9
5			9		4			2
	9	3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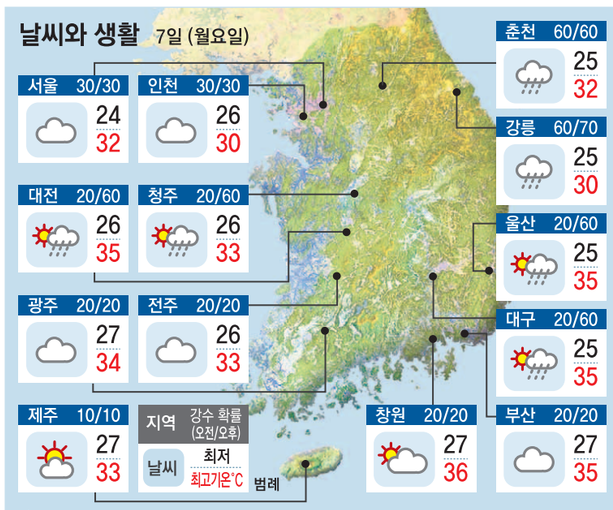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정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6	2	3	1	9	4	7	5	8
7	1	8	2	6	5	3	9	4
9	4	5	3	8	7	2	1	6
5	7	2	4	1	3	6	8	9
4	6	9	5	7	8	1	2	3
8	3	1	6	2	9	4	7	5
3	9	4	7	5	2	8	6	1
2	5	6	8	4	1	9	3	7
1	8	7	9	3	6	5	4	2

6	1	8	4	5	2	7	9	3
4	2	7	3	1	9	5	6	8
9	3	5	8	7	6	2	4	1
7	4	9	1	2	5	8	3	6
8	5	1	6	9	3	4	2	7
3	6	2	7	4	8	9	1	5
2	7	4	5	6	1	3	8	9
5	8	6	9	3	4	1	7	2
1	9	3	2	8	7	6	5	4

날씨와 생활 7일 (월요일)



해뜸 05:40 / 해짐 19:34 달뜸 19:13 / 달짐 04:56

산 날씨

북한산	26/33
설악산	24/29
오대산	23/31
계룡산	26/34
속리산	24/33
소백산	24/31
팔공산	25/35
지리산	25/35
덕유산	23/32
내장산	25/33
한라산	23/29

바다 날씨

인천송도	26/30
제부도	25/31
경포대	25/30
속초	24/29
대천	26/31
안면도 꽃지	25/31
변산반도	26/33
거문도	27/34
칠포	27/30
해운대	27/34
제주도	27/31

미세 먼지

서울	23	좋음
부산	20	좋음
대구	26	좋음
인천	32	보통
광주	21	좋음
대전	20	좋음
울산	19	좋음
경기	25	좋음
강원	27	좋음
충북	24	좋음
경남	15	좋음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8일 (화) 서울경기 28/36 영동 24/30 충청 26/36 호남 27/35 영남 26/32 제주 27/33
9일 (수) 서울경기 26/33 영동 25/28 충청 25/34 호남 26/35 영남 26/32 제주 28/32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7일(월요일) 음력:윤 6월 16일

쥐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계획과 판단력이 뛰어나 주변의 시선을 모으고 결과에 대한 과분한 응답으로 몸 둘 바를 모른다.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새로운 일의 시도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마음만 동요되니 하던 일에 전념하라. 노력한 공은 인정받으나 쓸데없는 언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오늘은 부부간의 분쟁, 아버지와의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이성간의 마찰이 우려되니 마음을 즐겁게 유지하라. 길방:북
토끼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귀인의 도움으로 사업상 재물이 따르며,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직장에서의 승진 등 좋은 소식이 있다. 길방:남
용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지는 마라. 오늘은 마음의 불안이나 혼동 등으로 실수하기 쉬우니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날이다. 길방:남
뱀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이롭다. 오늘은 겁살일이라 욕심이 많은 날이다. 부부간의 다툼을 조심하라. 여성의 경우 남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조심하라. 길방:동
말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노을, 인생무상. 운세: 이성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며 물질적으로도 고통이 있다. 그러나 직장인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날이다. 출장이나 파견근무에서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는다. 길방:동
양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길방:동. 운세: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주변인과의 마찰이 생기기 쉽다.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추진하지 말라. 운의 성쇠가 교차되는 시기이다.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강한 욕망으로 새로운 일에 투자하는 등 전환을 시도한다. 냉정한 판단력이 자신의 진로를 좌우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현재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좋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라. 이성운과 금전 운이 좋은 날이다.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오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의 확장이나 변화를 위해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길방:남
돼지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사업운, 취업운, 혼담운이 좋은 날이다. 길방:서
재운 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3,6,8,(4,7)**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토끼,양,돼지**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쥐,용,원숭이**

한국ABC 인증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싣지 않습니다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승욱
인쇄 동아일보사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2
스포츠1부 02 2020 1041
스포츠2부 02 2020 1059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경제부 02 2020 1062
뉴미디어전략팀 02 2020 1027
사진부 02 2020 1069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